

# 1627~1637년 조선의 遼民 대책과 토벌론\*

우경섭\*\*

## 〈차 례〉

1. 머리말
2. 정묘호란 이후 요민의 평안도 점거
3. 가도의 혼란과 요민토벌론의 대두
4. 맺음말

## [국문초록]

1627년(인조 5) 정묘호란 이후 청천강 이북에서 벌어진 東江鎮과 遼民의 작폐는 호란 이전보다 한층 조직적으로 전개되었다. 毛文龍은 가도 인근 해안을 넘어 내륙까지 진출하여 군사를 주둔시켰고, 요민들은 피난한 조선인들의 땅을 차지하고 눌러앉으려 하였다. 또한 그들은 조선의 관리와 군인들을 공격하고 사신 일행까지 습격하는 등 조선의 공권력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더구나 모문룡은 조선인들까지 동강진에 편입함으로써, 청천강 이북 일대를 자신의 통치 아래 두고자 하였다.

1629년 모문룡이 요동경략 袁崇煥에 의해 처형된 뒤, 명 조정은 가도의 일부 병력 및 요민을 철수시켰다. 그러나 동강진의 내분이 지속되면서 그동안 요민들에게 의식을 공급하고 작폐를 단속하던 최소한의 기능조차 마비되자, 절박한 처지에 내몰린 요민들은 동강진의 통제에서 벗어나 내륙을 횡행하며 각자도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요민의 登州 송환을 기본 방침으로 고수하던 조선 조정에서는 두 가지 대책이 검토되기 시작했다. 동강진과 요민을 무력으로 제어하려는 토벌론과 청천강 이북의 통치를 잠시 유보하자는 청복포기론이었다. 특히 1630년 劉興治의 반란 이후 요민을 대하는 조선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다. 조선 조정은 요민들이 명을 배신하고 후금과 내통할 가능성을 명분으로 삼아, 가도에 대한 식량 지원을 중단하고 군사를 보내 가도를 공격했다.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NRF-2017S1A5A2A01024459) 및 2022년 인하대학교의 지원(67880-01)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인하대학교 사학과 교수

그러나 명 조정은 여전히 동강진의 전략적 가치를 중시했고, 요민의 작폐는 계속되었다. 또한 후금은 동강진의 내분을 틈타 가도를 공격하며 재침을 위협했다. 이러한 상황 아래 조선은 청북의 방어체제를 완비하지 못한 채 병자호란을 맞게 되었다. 그리고 1637년 청에 항복한 직후 수군을 파견해 가도 공격에 동참하여 요민을 토벌하고, 남한산성에서 맺은 약조에 따라 요민을 수색하여 청으로 송환하기 시작했다. 이제 명나라 백성으로 조선이 보살펴야 할 요민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았고, 체포하여 복송해야 할 청의 백성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주제어] 요민(遼民), 모문룡(毛文龍), 동강진(東江鎭), 유흥치(劉興治), 토벌론(討伐論), 청북포기론(淸北拋棄論)

## 1. 머리말

1619년 사르후 전투 이후 본격화된 후금의 서진으로 말미암아, 요하 유역 漢人들이 대거 압록강을 넘어 조선 영토로 피난하면서 조선의 遼民 문제가 시작되었다. 1621년 후금의 瀋陽·遼陽 점령 및 1622년 毛文龍의 東江鎭 설치로 급격히 증가한 요민의 숫자는 순식간에 2만을 넘어 1623년 인조반정 무렵 10만, 1627년 정묘호란 직전에는 20~30만 명을 헤아리게 되었다. 이러한 숫자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10만 명에 가까운 한인들이 평안도로 유입된 정황은 대략 짐작할 만하다.

조선 조정은 조선에 건너온 요민들이 후금과 내통하거나 후금의 월경 침입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평안도 백성들에 대한 침략 및 굶주림으로 인한 소요를 우려하며, 유입 초기부터 이들을 산동성 叡州로 송환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명 조정과 협의를 이어나갔다. 그러나 요민을 기반으로 자신의 세력을 구축·유지하려던 모문룡의 방해, 그리고 동강진의 전략적 가치를 중시하던 명 조정의 복잡한 계산 속에서 요민의 송환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sup>1)</sup>

결국 1627년 후금이 동강진 제거와 요민 획득을 목표로 삼아 정묘호란을 일으켰는데, 이 글에서는 정묘호란 직후부터 1637년 조·청 연합군에 의해

1) 요민에 관한 연구사 및 정묘호란 이전 요민의 출현과 조선의 대책에 관해서는 우경섭, 『1620~1627년 조선의 遼民 인식과 송환론』, 『동국사학』 74,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22 참조.

가도가 함락되기까지, 요민의 동태와 그에 대한 조선 조정의 대책을 검토하려는 것이다. 아래 2장에서는 정묘호란을 전후하여 모문룡과 요민들이 청천강 이북 지역에 본격적으로 정착하려던 움직임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1629년 모문룡의 처형 및 1630년 劉興治의 반란 이후 동강진의 혼란과 더불어, 조선 조정에서 요민에 대한 토벌론과 함께 청북포기론이 대두한 정황을 서술하고자 한다.

## 2. 정묘호란 이후 요민의 평안도 점거

1627년(인조 5) 1월 정묘호란이 일어났다. 후금이 조선을 침공한 첫 번째 목적은 동강진의 제거였고, 두 번째 목적은 요민의 획득이었다.<sup>2)</sup> 후금군은 개전 후 열흘 만에 의주를 거쳐 안주와 평양을 함락하고 임진강에 다다랐다. 이 과정에서 모문룡은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선인들이 후금군을 인도해 자신을 공격했다고 조선 조정에 항의하거나 북경에 고하였다.<sup>3)</sup> 그리고 청천강 이북을 자신에게 넘기고, 조선은 물러나 안주와 대동강 방어에 전념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조언했다.<sup>4)</sup>

1627년 2월 말 강화가 이루어지고 후금군이 철수하자 요민들의 보복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다 머리가 깎인 채 탈출한 사람들은 물론 전쟁을 피해 숨어있던 피난민까지 학살하고, 후금군이라 보고하여 상을 받았

2) 『청태종실록』 권2, 천총 원년 정월 8일(병자) “上諭曰, 朝鮮屢世獲罪我國, 理宜聲討, 然此行非專伐朝鮮也. 明毛文龍, 近彼海島, 倚恃披猖, 納我叛民, 故整旅徂征, 若朝鮮可取, 則並取之.”; 천총 원년 3월 14일(신사) “大貝勒阿敏答朝鮮書曰, 爾謂我等無故興兵, 試言其故. …… 天以遼東賜我, 遼東之民, 我也. 爾國容匿毛文龍, 潛據海島, 致我遼東百姓, 被其侵擾, 聽其引誘, 我曾令爾縛送毛文龍, 復成兩國之好, 爾竟不從, 四也.”

3) 『인조실록』 권15, 인조 5년 2월 5일(임인), 25일(임술); 『명희종실록』 권82, 천계 7년 3월 3일(경오) “兵部上毛文龍揭言, 麗官麗人招奴害職, 職堅守不拔, 所傷不滿千人, 奴恨麗人, 殺死麗兵六萬, 燒糧米百萬餘石, 移兵攻麗等情. 得旨, 覽奏. 奴兵東襲, 毛帥銳氣未傷, 朕心深慰. 麗人導奴入境, 固自作孽, 然屬國不支, 折而入奴, 則奴勢益張, 亦非吾利, 還速傳諭毛帥相機應援, 勿懷宿嫌, 致誤大計.”

4) 『만오집』 권5, 『梔島奉使時間見啓-丁卯』 4월 29일 “都督送小錄言, 爾國退守安州或浪江, 借我清川以北, 則秋來水盛, 自有好道理云.”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1999, 388쪽 재인용)

다. 예컨대 정주에서는 조선인 피난민 1만여 명이 모병의 공격을 받아 300명만 살아남았고, 용골산성의 승첩을 전하러 서울로 향하던 전령마저 요민에게 피살될 지경이었다. 더구나 병선을 동원해 철산·용천·선천 등지의 섬들은 물론 내륙 지역까지 약탈하며 ‘남자는 도륙하고 여자는 겁탈하는’ 참극을 저질렀다. 그 범위는 운산·영변·구성·태천 등 평안도 내륙뿐 아니라 황해도 일대까지 확대되었다.<sup>5)</sup>

전쟁이 끝난 뒤 조선의 급선무 중 하나는 전란으로 흩어진 백성들을 안집시켜 국가 부재의 상황을 해소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정의 통치력이 미쳐 회복되지 못한 틈을 타서, 청천강 이북 지역에서 벌어진 동강진과 요민의 작폐는 호란 이전보다 한층 심각해졌고 보다 조직적으로 전개되었다.

모문룡은 가도 인근 해안을 넘어 내륙까지 진출하여 군사를 주둔시키기 시작했고, 요민들은 빈 관아를 점령하고 피난한 조선인들의 땅에서 농사를 짓는 등 놀러왔을 기미를 보이고 있었다. 당연히 귀향한 조선인들과 다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양상은 전쟁 이전보다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조선 조정은 여러 차례 모문룡에게 이같은 실정을 호소했고, 모문룡은 요민을 단속해 가도를 비롯한 섬으로 철수시킬 것을 약속했지만, 요민의 침략은 좀처럼 줄지 않았다.

더 나아가 그들은 조선의 관리와 군사들까지 습격하며 조선왕조의 공권력을 침해하기 시작했다. 전쟁 직후 구성부사 이지훈이 이전들을 데리고 관아로 귀환했다가 요민 20여 기의 습격을 받아 흩어졌고, 의주 일대 관사들은 요민의 약탈과 방화로 소실되어 수령이 부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호란에서 살아남은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모여들었지만, 동강진과 요민의 횡포를 막아낼 조선의 행정력과 군사력은 재건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조정은 수시로 남쪽의 군사를 모아 평안도에 파견했지만, 청천강 이북의 통치를 수습할 가

5) 『인조실록』 권16, 인조 5년 4월 8일(갑진), 4월 15일(신해), 4월 17일(계축), 4월 19일(을묘), 5년 5월 13일(무인); 『계곡집』 권22, 「毛都督移咨-丁卯」① “臣等竊照毛鎮駐師海上, 與我便有唇齒之義, 其所以撫摩我民, 宜無所不用其極, 豈有放縱官兵, 劫殺良民之理? 此必巡哨兵丁不畏法度, 恣意殺越, 以爲獻級邀賞之地. 至於海上行兇之變, 亦是無賴棍徒乘時作歹, 豈不畏死, 若毛鎮聞知, 想必同我憤疾, 痛加禁斷.”

망이 없다는 수령들의 보고만 잇따를 뿐이었다.<sup>6)</sup>

요민들은 대담하게 조선의 城堡까지 공격했다. 벽동에서는 압록강변의 廣坪堡와 小坡堡를 점령하여 200여 명의 조선인을 살해했고, 운산에서는 군수 윤염을 활로 쏘아 중상을 입혔다.<sup>7)</sup> 조정에서도 이때의 난리가 예전과 전혀 다른 차원의, 조선의 공권력에 대한 도전임을 심각하게 인식했다.

요민의 작폐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배고픈 백성들과 무리배들이 죽음을 면하고자 곡식을 약탈하고 가축을 훔쳤으며, 간혹 우리나라 사람을 죽인 뒤 머리를 깎고 목을 잘라 모진에 바쳐 상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것이 어찌 모진이 고의로 방치하여 그렇게까지 된 것이겠습니까? 간악한 백성들이 악행을 저질러도 모진의 법령으로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와 다르니, 우리나라 변방의 城堡가 비록 작지만 일단 城池를 설치하고 관리를 두어 지키게 하였으니 일반 촌락과 다릅니다. 그런데 저 무리들이 감히 아무 이유 없이 군사를 동원해 두 성을 점령하고, 장관을 쏘아 다치게 하고 백성들을 학살했습니다.<sup>8)</sup>

더구나 모문룡은 조선인들까지 동강진에 편입함으로써, 청천강 이북 일대를 사실상 자신의 통치 아래 두고자 시도했다. 그는 정묘호란 직전부터 요동을 탈출한 수백 명의 한인들에게 관작을 수여하고 文廟를 세워 과거까지 실시했는데,<sup>9)</sup> 전쟁이 끝난 뒤에는 정봉수와 최효립 등 조선 장수들에게도 명의 관작을 내렸다. 그리고 가도 일대 조선인들을 요동반도의 大楮島·獐子島

6) 『인조실록』 권17, 인조 5년 8월 16일(기유), 10월 4일(정유); 권19, 인조 6년 9월 11일(무진), 9월 19일(병자).

7) 『인조실록』 권16, 인조 5년 5월 13일(무인). 윤염은 송시열의 姊兄이다.

8) 『계곡집』 권22, 『毛都督移咨-丁卯』② “遼民作歹, 其來也久矣. 始則飢民無賴, 迫於救死, 或攘奪殺食, 或剽竊牛畜, 間有戕殺我人, 髡髮斷頭, 獻級毛纛, 以爲討賞之計. …… 此豈毛纛故放縱至此哉? 蓋奸民作惡, 非法令之所能制也. 今則異於是, 我國邊堡雖小, 然既設城池, 置官吏以守之, 則與村落不同, 而此輩乃敢無故動兵, 攻陷兩城, 射傷將官, 屠殺人民.”

9) 『명회종실록』 권76, 천계 6년 9월 5일(갑술) “毛文龍復上言, 遼士蹈海就臣者, 數年間不下二三百餘名. 臣給以衣冠資斧, 又立文廟, 權設學政以董之. 前冊封朝鮮使臣, 至鐵山, 課試諸生, 一一爲之品題. 乞照天啟五年, 遼東巡撫喻安性具題, 仍准遼士就省科舉, 或附山東, 或在北京, 一例應試.”

등으로 이송하여 동강진에 소속시켰다. 이에 백성들이 명나라 섬으로 끌려갈 것을 두려워하여 다시 유리하는 사태가 벌어졌다.<sup>10)</sup>

또한 모문룡은 동강진을 이탈해 남쪽으로 도망한 요민들을 직접 쇠환하려 했는데, 그 와중에 벌어진 대표적 사건이 毛永卿의 소요였다. 1627년 11월부터 모문룡은 차관 모영경을 파견해 조선 내지로 흩어진 한인들을 붙잡아 동강진으로 데려가고자 하였다. 서울에 도착한 모영경은 동대문과 남대문에 방을 붙인 뒤, 서울 인근을 수색하여 한 달 만에 160명의 요민을 찾아냈고, 다시 전라도까지 내려가 요민을 색출했다. 그 과정에서 서울에 몰려든 요민들이 여염을 횡행하며 조선인을 납치·살해하는 등 소요를 일으켰고, 호남에 내려간 모병들은 수령을 구타하는 행패를 저질렀다. 더 나아가 후금의 사신으로 조선에 들어온 강홍립 일행을 잡아가겠다고 궁궐에 돌입해 칼을 빼들고 난동을 부리다 조선군과 충돌 직전까지 이르는 사태가 벌어졌다.

요민 쇠환을 명분으로 전국을 횡행하며 조선의 관리들을 공격한 모병들의 행동은 분명 조선의 주권에 대한 침해였다. 조선 조정의 강력한 항의로 모영경은 동강진의 문책을 받았지만, 그 뒤에도 차인 王學勝이 도망병 추쇄를 구실 삼아 평양 일대를 약탈하고 수령을 포박·모욕하는 등 동강진에 의한 공권력 침해는 그치지 않았다.<sup>11)</sup>

한편, 강화 직후 조선과 후금 사이에서는 중강 및 회령에 開市하는 일이 중요한 현안으로 떠올랐고, 이를 협의하기 위한 두 나라의 사신 행렬이 빈번하게 왕래했다. 모문룡은 후금 사신을 습격함으로써 명 조정에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고자 했는데, 조선은 후금에 모병의 계획을 통지하여 양측이 조선에서 충돌하는 일을 미연에 막고자 하였다.

그러나 1628년(인조 6) 8월 모병들이 의주 일대에서 후금의 사신 박중남 일행을 습격하다 도리어 그들에게 사살된 사건이 일어났다. 모문룡은 이 사건

10) 『인조실록』 권16, 인조 5년 6월 20일(을묘), 7월 2일(병인), 7월 3일(정묘), 7월 7일(신미), 7월 22일(병술); 권17, 인조 5년 8월 11일(갑진).

11) 『인조실록』 권17, 인조 5년 10월 20일(계축), 11월 28일(신묘), 12월 1일(갑오), 12월 6일(기해), 12월 18일(신해); 권18, 인조 6년 2월 14일(병오); 권19, 6년 7월 23일(임오), 7월 25일(갑신), 8월 23일(신해), 11월 27일(갑신).

의 책임을 후금과 내통한 조선에 돌리며, 의주부 및 麟山鎭 등 인근 관아로 쳐들어가 중강 개시를 위해 보관하던 미곡을 탈취하고 조선인을 살해했다.

이 사건 이후 모문룡은 조선과 후금의 내통을 핑계삼아, 양국의 사신 행렬을 공격하고 개시를 위해 비축한 관곡과 우마까지 빼앗기 시작했다. 바다에서는 청천강 이북 조선인을 진흙하기 위한 쌀 수송선 10여 척과 관항사의 무역선 3척을 약탈하는가 하며, 후금에 다녀오던 회답사 정문의 일행을 습격하여 대부분을 살해했다. 심지어 북경에 가던 동지사 송극인 일행마저 모병들에게 은과 인삼을 빼앗기는 일이 벌어졌다.<sup>12)</sup>

한편 후금군에 의한 피해 역시 이전보다 심해졌다. 정묘호란의 결과 후금은 전쟁의 가장 큰 목표인 대조선 관계의 안정을 이루었다. 조선과 형제 관계를 맺어 정식으로 사신을 주고받으며 개시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한편, 조선에 대한 우려를 뒤로 미루고 명과의 전쟁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1629년 11월 홍타이지가 직접 1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만리장성을 넘어 북경을 공격했던 이른바 己巳虜變도 조선과의 화친으로 인해 가능한 일이었다.<sup>13)</sup>

그러나 후금은 조선 침공의 또다른 목적인 모문룡 제거와 요민 획득이라는 성과를 이루지 못했기에, 가도를 대상으로 한 군사 활동은 전쟁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강화 당시 조선은 요민들을 섬에 가두고 내륙에서의 활동을 금단하겠다고 후금에 약조했지만, 조선의 통제 밖에 있던 모문룡의 움직임은 갈수록 활발해졌고, 모문룡을 견제하기 위한 후금의 평안도 침공 역시 계속되었던 것이다.

또한 후금은 요민을 자신들에게 보낼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전쟁 중 잡혀갔다 탈출한 조선인 포로뿐 아니라, 전쟁 이전 조선으로 건너간 여진인과 요민들까지 돌려보내라고 조선 조정을 압박했던 것이다.

12) 『인조실록』 권18, 인조 6년 3월 30일(신묘), 4월 9일(경자); 권19, 인조 6년 8월 16일(갑진), 8월 20일(무신), 9월 4일(신유), 9월 19일(병자), 9월 26일(계미), 10월 2일(기축), 10월 17일(갑진), 11월 22일(기묘).

13) 정병철, 『‘天崩地裂’의 시대, 明末清初의 華北社會』,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8, 64~68쪽.

우리 두 나라는 본디 원한이 없었는데, 귀국이 南朝에 군사를 보내 우리 국경을 침범하고, 또한 도망간 우리 백성들을 받아들여 살게 했기에 군사를 일으켜 정벌했던 것이다. …… 화친의 서약이 이루어진 뒤 귀국 백성이 우리 나라로 도망해 오면 우리가 즉시 조사해 돌려보낼 터이니, 金人·漢人 및 포로가 된 조선인 중 귀국으로 도망한 자 역시 즉시 조사해 내어야 할 것이다. 서로 숨기고 조사해 보내려 하지 않는다면, 두 나라의 우호 관계에 도리어 무익할 것이다.<sup>14)</sup>

그러나 조선은 명의 백성인 요민을 후금에 넘겨줄 수 없었고, 이에 따라 후금군이 수시로 압록강을 건너 한인들을 살해하거나 잡아가는 일이 벌어졌다. 1629년(인조 7) 2월 수천 명의 후금군이 蛇浦를 급습하여 조선인은 석방하고 한인들만 잡아갔는데, 이때 조선군은 산으로 도망쳐 지켜볼 뿐이었다.<sup>15)</sup> 3월에는 楞額禮가 정예병 500명을 이끌고 철산을 습격해 요민 370명을 죽이고 140명을 잡아갔으며, 7월에는 石廷柱 등이 동강진에 속한 黃骨島·石城島·鹿島 등과 旅順까지 대대적인 공격을 가하여 300여 명을 죽이거나 생포했다.<sup>16)</sup> 압록강 부근에서 후금군과 마주쳤다가 죽거나 잡혀간 요민들은 부지기수였다.

이러한 상황 중에 명 조정은 동강진을 요동반도 끝자락의 여순 및 廣鹿島와 長生島 등으로 옮길 것을 다시 검토했다. 후금과의 전선이 서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가도의 전략적 가치가 예전만 못하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다. 그러나 동강진 철수에 따른 수습 만 요민의 수용을 감당할 수 없었기에, 그들을 조선에 그대로 맡겨놓고자 하였다.<sup>17)</sup>

14) 『인조실록』 권16, 인조 5년 5월 30일(을미) “惟我兩國，原無仇恨，而助兵南朝，來侵我境，復容住逃民，故發兵征之。……自立誓之後，貴國人逃至我國，我即查出送去，若金漢人及擒獲麗人，有逃至貴國者，亦即查出，互相隱匿，不肯查送，兩國和好之事，反復無益云。”

15) 『인조실록』 권19, 인조 6년 7월 1일(경신); 권20, 인조 7년 2월 17일(계묘), 2월 20일(병오).

16) 『청태종실록』 권5, 친종 3년 2월 14일(경자), 3년 5월 24일(무신).

17) 『명희종실록』 권71, 천계 6년 5월 5일(병오); 『송정장편』 권7, 송정 원년 3월 14일(을해) “至東江移鎮之說，則有不容不詳酌者。皮島駐師，鞭長豈及馬腹，而文龍去年亦原有移駐廣鹿長生之議。廣鹿長生去蓋稍近，而于高麗不失犄角，最爲便計。以至東江兵號五萬，雖未必盡實，而但令就中挑選若干，統以部下偏帥，進據蓋套，此亦何說之辭?”; 권7, 송정 원년 3월 25일(병술) “諸臣每懷東顧之憂，因有移鎮之請。臣謂兵餉宜核移鎮，宜酌誠熟計之，毛文龍何難移哉?但數萬生靈，誰非赤子，無處安插，

요컨대, 정묘호란의 결과 조선은 후금과 형제의 맹약을 맺고 전쟁을 끝낼 수 있었다. 그러나 명에 대한 사대관계를 지속하는 한 후금과의 화친은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없는 미봉책에 불과했다. 특히 요민에 대하여 명과 후금 두 적대국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가운데, 조선은 이렇지도 저렇지도 못하는 처지에 처하게 되었다. 더구나 전쟁 직후 평안도 지역에 대한 공권력의 부재 속에서, 모문룡의 위세에 의지한 요민들이 본격적인 정착을 시도하면서 조선인들과의 갈등은 더욱 심해졌다. 그리고 조선의 관아와 성보뿐 아니라 사신 일행까지 습격하는 등 조선의 공권력까지 침탈하고 있었다. 이 무렵 모문룡은 조선을 침공해 자신의 지배 아래 두려는 속셈을 지니고 있었다.<sup>18)</sup>

### 3. 가도의 혼란과 요민토벌론의 대두

1629년 6월 요동경략 袁崇煥이 모문룡을 요동반도 앞바다의 雙島로 불러 12개 죄목을 열거한 뒤 처형했다. 요지는 개진 이후 8년간 尺寸의 땅도 회복하지 못하고 조정을 기만하여 은과 곡식을 편취했다는 것이었지만, 요민을 가도에 가두고 귀환을 막은 채 굶겨 죽인 것도 하나의 이유였다.<sup>19)</sup> 그리고 조선에 모문룡의 죄상을 알리며 동강진과 요민의 철수를 명시한 자문을 보내 왔다.

모문룡이 외딴 섬에서 몇 년을 지내며 실로 왕(인조)의 덕택에 힘입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무인으로서 계획이 부족하고 탐욕 때문에 도둑떼를 길러내어, 왕의 나라에 무리한 요구를 하다가 강역의 수치가 되었습니다. 이에 황제께서

必各據一島，散而爲寇，豈直登萊受禍？即劫朝鮮而生日本之心，東憂方大也”；권8, 원년 4월 19일 (경술) “兵部覆東江移鎮疏，言東江一旅未可輕撤。”

18) 『송정장편』 권23, 승정 2년 6월 5일(무오) “臣見其難制也，不可用也。諷之曰，久勞邊塞，杭州西湖，儘有樂地。文龍應臣曰，久有此心，但惟我能知東事，事畢，朝鮮文弱，可襲而有也。”

19) 『송정장편』 권23, 승정 2년 6월 5일(무오) “文龍拘綱難民，不令一人渡海，日給米一升，令往北地掘參，屢遭屠殺，其畏死不往者，餓死島中，皮島白骨如山，草菅人命，九當斬。”

만 리 밖을 환히 보시고 내게 상방검을 빌려주시어 군중에 나아가 그를 죽이게 하셨습니다. 이는 섬에 있는 수만 명의 목숨을 살릴 뿐 아니라 멀리 있는 속국의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함이니, 밝으신 천자의 깊은 뜻입니다.<sup>20)</sup>

피도(가도)는 원래 중국땅이 아닙니다. 따라서 동강의 군사들에게 명령하여 서쪽으로 옮긴 뒤 진격을 도모하고, 예전처럼 토색질하여 귀국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귀국에서도 담당 관청에 통지하여 각기 강역을 안정시키고 군민의 마음을 수습하십시오. 만약 官兵(명군) 가운데 예전처럼 국경을 넘어 소요를 일으키는 자가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하면 엄히 다스리겠습니다.<sup>21)</sup>

모문룡의 처형 소식을 접한 조선 조정이 원숭환을 통해 가장 먼저 추진한 일은 요민의 송환이었다. 실제로 명 조정은 모문룡 처형 직후 조선에 많은 폐해를 끼친 참장 曲承恩을 처벌하고, 가도의 일부 병력 및 요민을 철수시킴으로써 조선을 위무하려 했다. 이때 상당수 노약자들이 등주로 송환되고, 동강진에 강제 편입된 조선인들도 귀환할 수 있었다.<sup>22)</sup>

한편, 모문룡의 처형 직후 동강진의 병권은 모문룡의 아들 毛承祚를 비롯해 徐敷奏·劉興祚·陳繼盛 등 4명의 장수가 분점했지만,<sup>23)</sup> 곧 진계성이 도독에 임명되어 가도를 주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 사이의 분란이 끊이지 않으며, 동강진은 요민에 대한 통제력을 점차 상실해 갔다.

標文이 없는 한인들이 20~30명 혹은 50~60명씩 떼를 지어 老江 인근에서 줄지어 나와 출몰하며 백성들을 침학함에 끌이 없습디다. 이들은 예전 구걸하러 다니던

20) 『인조실록』 권21, 인조 7년 7월 28일(신해) “毛帥歷年絕島，寔藉王休，以有今日，而武人寡謀，貪而養寇，多求王國，以貽疆域羞。皇上明見萬里，假煥尙方，卽其軍中誅之，蓋不獨全此數萬島人之命，而所以紓屬國綏遐服者，明天子有深意焉。”

21) 『인조실록』 권21, 인조 7년 7월 28일(신해) “皮島本非中國地，其東江一師，撥令西徙，以圖進取，毋仍徵索，爲貴國苦。其通諭所司，各安疆域，綏戢軍民。若官兵有仍前越境需擾者，可卽明報，當卽治警。”

22) 『승정장편』 권23, 승정 2년 6월 19일(임신) “遼民壯者入伍，老者縱歸。朝鮮聲援相聯，亦與移論甚區畫未盡事務.”; 『인조실록』 권21, 인조 7년 8월 7일(기미), 8일(경신), 9일(신유), 12월 23일(계유).

23) 『승정장편』 권23, 승정 2년 6월 5일 “分東江兵二萬八千爲四協，用文龍子承祚管一協，用旗鼓徐敷奏管一協，其二協，東江各官舉遊擊劉興祚副將陳繼盛二員分管.”

부류와 같지 않으니, 활과 칼을 차고 다니며 백성들을 위협해 닭과 개를 잡아먹고, 쌀을 빼앗아 쌓아놓고 여염집의 소와 말을 징발하여 줄줄이 실어나릅니다. 저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매질이 낭자하니, 그 기색이 자못 다르고 약탈이 예전의 두 배나 됩니다.<sup>24)</sup>

평안감사의 위와 같은 보고는 그동안 제한적이거나 요민에게 의식을 공급하고 작폐를 단속하던 동강진의 최소한 역할마저 사라진 이후 달라진 평안도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각자도생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처지에 내몰린 요민들은 이제 표문으로 상징되는 동강진의 통제에서 벗어나, 내륙을 횡행하며 노략질을 행했던 것이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요민의 등주 송환을 기본 방침으로 고수하던 조선 조정에서는 또다른 두 가지 대책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동강진과 요민을 무력으로 진압하려는 토벌론과 청천강 이북의 통치를 잠시 유보하자는 이른바 ‘청북포기론’이었다.<sup>25)</sup> 특히 1630년(인조 8) 4월 유흥치가 반란을 일으켜 진계성을 살해하고 가도를 장악하자, 그들을 대하는 조선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졌다.<sup>26)</sup> 조선 조정은 이때부터 요민들이 명을 배신하고 후금과 내통할 가능성을 명분으로 삼아 가도에 대한 무력 토벌을 공식적으로 검토했다.

요민에 대한 토벌론은 인조 초반부터 수시로 제기되었다. 1624년(인조 2) 요민의 침략을 우려하는 인조의 질문에 대하여, 체찰사 장만은 ‘조만간 난리가 일어나겠지만 토벌은 어렵지 않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인조와 장만 모두 토벌 이후 발생할 명의 의심과 문책을 우려했기에, 더 이상의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sup>27)</sup> 1626년(인조 4) 요동 유학 倪汝聽과 동강진의 장수 徐孤臣

24) 『승정원일기』, 인조 8년 4월 17일(병인) “無標文漢人二十三十或五六十爲群, 自老江沿邊等處, 連絡出來, 或留或去, 侵擾居民, 罔有紀極, 非如前日行乞之類, 佩弓帶劍, 驅脅村民, 打食鷄犬, 索米積置, 賣出閭家牛馬, 輪運連絡, 差違渠欲, 鞭扑狼藉, 氣色頓異, 搶掠倍前.”

25) ‘청북포기론’이라는 개념은 한명기가 처음 제시했는데, 이에 관해서는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1999, 384~390쪽; 『역사평설 병자호란』 1, 푸른역사, 2013, 319~321쪽 참조.

26) 유흥치 반란 이후 가도의 동향 및 후금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스텔키 카이, 『劉興治와 朝鮮과의 관계에 대하여』, 『만주연구』 19, 만주학회, 2015 참조.

27) 『인조실록』 권7, 인조 2년 12월 22일(임인) “上曰, 都督之侵害我國, 日以益甚, 何以支堪耶? 晚曰, 毛兵之害滋甚, 早晚必作亂於內地, 作亂之後, 擊之不難. 上曰, 是何言耶? 非以勝負爲慮也. 以興曰,

등이 모문룡의 반역 모의를 고변했을 때에도, 조선은 이를 명 조정에 통보하고 일전을 불사할 것을 검토했다. 그러나 실제 반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명나라 장수 모문룡을 선불리 공격할 수 없었다.<sup>28)</sup>

이처럼 조선 조정은 동강진과 요민에 대한 토벌을 늘 염두에 두고, 그것이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라 여기고 있었다. 하지만 명의 신하이자 백성인 그들을 무력으로 공격할 경우 초래될 명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여 실행에 옮기지 못할 따름이었다. 그러나 1630년(인조 8) 5월 유흥치가 진계성을 죽이고 가도를 장악하자 인조와 조선 조정은 곧바로 토벌 준비에 착수했다.

토벌의 명분은 유흥치가 투항한 여진인(降獐)들과 결탁해 가도의 명군 지휘부를 살해하고 후금에 귀순하려 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적인 이유는 그간 벌어진 요민의 작폐와 조선 공권력에 대한 침해 때문이었다.<sup>29)</sup> 특히 유흥치는 반란 직전인 1630년 3월 갑병 500명을 이끌고 의주성을 포위해 부윤 이시영을 활로 쏘고 백성들을 살상하는 사건을 일으켰다. 후금의 차사 박중남을 기습하려 했지만, 후금과의 갈등을 염려한 이시영이 박중남 일행을 도피시킨 것에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킨 것이었다. 이 사건 직후 평안감사 김시양은 정예병 4천을 안주에 주둔시킬 것을 건의했는데, 후금의 침공보다 요민의 소요에 대비하려는 목적이었다.<sup>30)</sup>

1630년 4월 동강진의 반란 소식이 전해지자, 인조는 곧바로 유흥치를 천조의 叛賊으로 규정하고 토벌을 명했다. 또한 좌의정 김류, 이조판서 정경세 등도 유흥치가 후금에 투항하거나 산동을 공격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토벌에

擊之雖不難，既勝之後，將置國家於何地乎?” 장만을 중심으로 한 1624년의 요민토벌론의 전개에 관해서는 허태구, 「張晩의 대외정세 인식과 대중국 외교현안 대응」, 『대구사학』 146, 대구사학회, 2022, 26~30쪽 참조.

28) 우경섭, 앞의 논문, III장 참조.

29) 조일수는 당시 조선 조정이 유흥치와 한인들의 평안도 점령을 우려했기에, 그들을 제거하려는 의도 아래 유흥치의 후금 투항을 명분으로 삼아 토벌론을 제기한 것이라 평가했다. 한편 스키 카이는 후금과의 관계를 단절한 유흥치가 휘하 降獐들에게 살해되었으며, 그의 후금 투항은 가도를 장악하려던 張燕과 沈世魁가 꾸며낸 말이라 주장했다. 한편 스키 카이, 앞의 논문, 165~167쪽 및 조일수, 「인조대 대중국 외교에 대한 비판적 고찰」, 『역사비평』 121, 역사비평사, 2017, 355~356쪽 참조.

30) 『승정원일기』, 인조 8년 3월 3일(계미), 3월 21일(신축), 3월 22일(임인); 『인조실록』 권22, 인조 8년 3월 20일(경자), 4월 11일(경신).

동의했다. 반면 병조판서 이귀와 최명길·정구 등은 토벌 준비가 미흡하여 패할 우려가 있으며, 무엇보다 먼저 명 조정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하지만 인조는 조정의 분분한 논의를 묵살한 채, 총융사 이서와 부원수 정충신에게 각각 육군과 수군을 지휘하여 가도를 공격하도록 명했다.<sup>31)</sup>

이후 1630년 5월부터 7월까지 약 석 달간 이어진 가도 토벌의 실상은 사료에 상세히 전해지지 않는다. 아마 중화주의적 세계관을 견지하던 조선의 사관들이 명의 백성을 공격한 이때의 사실을 적극적으로 서술하기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요민을 함부로 해치지 말라는 인조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조선군이 요민을 공격한 흔적들을 감안하면, 당시 요민 토벌이 실제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sup>32)</sup> 창성부사 최유길이가 동강진의 군사들을 공격해 살해하고, 가도에 상륙한 조선군이 유흥치의 수군을 지닌 한인 55명을 호시했다는 『승정원일기』의 기록이 그 증거이다. 그리고 1630년 9월 유흥치가 여순에서 복귀한 뒤 조선군에 의한 요민 살해를 항의하자, 결국 정충신이 책임을 지고 사직한 것 역시 그 방증이라 할 수 있다.<sup>33)</sup>

제가 참소를 당해 대죄하여 서쪽으로 떠난 뒤 평양에 자문을 보내 전하게 아뢰었는데, 차인들이 모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서야 그들이 모두 귀국에 의해 도륙되었음을 알게 되었으니, 귀국의 관리들이 어찌 이처럼 중국을 경시하고 인명을 가벼이 여길 수 있습니까? 심지어 솥을 굽는 군사들을 감옥에 가두고 부녀들을 잡아다 처로 삼으며 나무꾼들까지 형벌하고 처형하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생각건대 귀국이 망할 위기에 처하여 毛帥(모문룡)가 여기 있을 때에도 이런 거동이 있었습니까?<sup>34)</sup>

31) 『인조실록』 권22, 인조 8년 4월 21일(경오), 4월 25일(갑술), 4월 27일(병자), 4월 28일(정축), 4월 29일(무인), 4월 30일(기묘).

32) 田川孝三 이후 대부분 연구들에서는 이때 명 조정이 유흥치를 달래어 용서하려는 의도를 조선에 통보함에 따라, 실제 토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듯하다. 田川孝三, 『毛文龍と朝鮮との關係について』, 叢文堂書店, 1932, 152~153쪽 및 스즈키 카이, 앞의 논문, 159쪽.

33) 『승정원일기』, 인조 8년 5월 8일(정해), 5월 23일(임인); 『인조실록』 권22, 인조 8년 5월 1일(경진); 권23, 인조 8년 9월 7일(계미).

1630년 7월 조선 조정은 토벌군을 해산했지만, 유흥치가 명 조정의 용서를 받고 귀환한 것인지 아니면 다시 도망온 것인지 확신하지 못했다. 따라서 조선은 가도에 대한 식량 공급 및 무역을 중단했고, 요민의 굶주림은 더욱 심각해졌다. 이에 유흥치는 식량을 주지 않으면 이대로 앉아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라 협박하며, 요민을 풀어 의주는 물론 청천강 남쪽의 평양과 용강을 비롯하여 황해도까지 진출해 곡식을 약탈했다.<sup>35)</sup>

그러나 조정에서 이미 토벌까지 감행한 상황에서, 조선인들의 반격 또한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1630년 12월 대동강 남쪽 中和에서 代將 양덕위가 노략질하던 요민 17명을 죽인 사건이 일어났다. 비변사에서는 양덕위를 처형하고 가도에 통보할 것을 건의했지만, 인조는 그를 처벌하면 요민의 난동이 더욱 치성하리라 염려하며 사면을 지시했다. 반면 유흥치는 양덕위를 가도로 압송할 것과 더불어, 향후 소란을 피우는 한인들은 동강진의 표문이 없더라도 죽이지 말고 돌려보내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부하들을 육지로 내보내 살인자를 색출하겠다고 소요를 일으켰는데, 사실상 요민의 치외법권을 요구한 것이었다. 그러나 황해도 황주와 서흥 등지에서도 조선인에 의한 요민 살해 사건이 잇따랐고, 조정에서 범인을 수감하자 백성들의 분노와 원망이 더욱 커져갔다.<sup>36)</sup>

후금의 세력이 갈수록 커져가던 상황 속에서, 명 조정은 유흥치와 요민을 달래어 동강진을 그대로 유지하려 하였다.<sup>37)</sup> 그러나 1631년(인조 9) 유흥치가 沈世魁와 張燾에게 살해되고, 유흥치와 우호적 관계였던 흥타이지가 후금

34) 『인조실록』 권23, 인조 8년 9월 3일(기묘) “興治違讒待罪, 奉調西行, 凡移咨平壤, 致啓殿下, 差人迄無還者, 乃知其悉被貴國屠戮, 何貴國執事輕中國而草菅人命若是也? 甚至燒炭將領, 禁於圍圍, 擄其婦女, 以爲家室, 併析薪之衆, 半付桎梏, 半付虔劉, 可爲痛心. 却計貴國廢立之秋, 毛帥在焉, 曾有是舉動否也?”

35) 『송정원일기』, 인조 8년 8월 17일(갑자); 『인조실록』 권23, 인조 8년 7월 23일(경자), 7월 27일(갑진), 9월 15일(신묘), 10월 17일(임술), 11월 4일(기묘), 11월 6일(신사), 11월 9일(갑신), 11월 29일(갑진), 12월 3일(정미); 권25, 인조 9년 9월 21일(임진).

36) 『인조실록』 권23, 인조 8년 12월 6일(경술), 12월 17일(신유); 권24, 인조 9년 1월 12일(병술).

37) 『송정장편』 권36, 송정 3년 7월 2일(기묘) “錦衣衛管衛事右都督項俊卿, 因東江劉興治之亂, 條上六議. 一曰, 收拾東鎮, 以扶朝鮮. 二曰, 撫劉興治, 以安反側. 三曰, 鼓舞島民, 以恢四衛. 四曰, 宣諭朝鮮, 以資唇齒. 五曰, 酌運本色, 以節煩費. 六曰, 通商以濟, 額餉之窮.”

군 1만 2천 명을 보내 가도를 습격하여 도독 黃龍이 이끄는 명군과 대규모 접전을 벌였다. 이에 등주군문 孫元化가 동강진의 철수를 조선에 제안했지만, 이 역시 1622년(광해군 14) 감군 양지원 때와 마찬가지로 요민 수송을 명분으로 삼아 배 100척을 요구하기 위함이었다.<sup>38)</sup> 가도에서는 여전히 황룡이 눌러앉아 과거 모문룡의 탐욕스러운 행태를 답습하다가 또다시 군병들의 반란을 겪는 등 혼란이 지속되었다.<sup>39)</sup>

이처럼 1630년대에 접어들어 동강진의 분란과 후금의 가도 공격이 잇따르던 상황 속에서, 조선이 청천강 이북의 통치력을 온전히 회복하기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렇다고 동강진의 역할을 여전히 중시하던 명 조정에게 요민 송환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무력을 동원해 축출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조선 조정에서는 청천강 이북의 통제를 잠시 유보하자는 이른바 ‘청북포기론’이 제기되었다. 최초의 청북포기론은 정묘호란 직후 모문룡이 조선의 공권력을 침해하기 시작하던 1628년(인조 6) 10월 이조참판 조익의 상차에서 처음 제기되었다.

저 오랑개가 서쪽 침범에 전념하여 요양을 버렸으니, 요동으로 땅을 개척할 뜻은 분명 없습니다. 그렇다면 의주를 지키지 않더라도 땅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오랑개가 정말 남쪽을 차지할 마음이 있다 한들, 수백 명의 잔악한 백성들을 두어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이로 본다면 의주에 들어가 지키는 것은 이해득실과 전혀 무관할 뿐 아니라, 한갓 살아남은 백성들로 하여금 모병의 먹이가 되어 저절로 죽음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니, 어찌 가련하지 않겠습니까? ……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의주·용천·철산의 백성을 옮겨 선천에 모아놓고 그 땅을 비우는 것보다 나은 계책이 없을 듯하니, 그러한 뒤에야 우리 백성이 호랑이 입에서 벗어날

38) 『계곡집』 권23, 『孫軍門回咨-辛未』; 『孫軍門回咨』②; 『王李兩都司回咨-辛未』. 한편 1622년 요민 철수를 명분으로 한 감군 양지원의 선박 요구에 대해서는 박현규, 『명 監軍 梁之垣 朝鮮出使 시기 해상활동에 관한 분석』, 『한중인문학연구』 39, 한중인문학회, 2013 및 우경섭, 앞의 논문 II장 참조.

39) 『인조실록』 권24, 인조 9년 3월 21일(을미), 9년 6월 28일(경오), 6월 29일(신미), 10월 11일(신해), 10월 26일(병인), 11월 4일(계유), 11월 28일(정유); 권26, 인조 10년 1월 4일(임인).

수 있을 것입니다.<sup>40)</sup>

조익은 후금의 목표가 조선이 아닌 중원에 있음을 전제하고, 동강진과 요민의 침탈이 극성한 의주·용천·철산 등 해안 지역 백성들을 청천강 북안의 선천과 박천으로 옮길 것을 제안했다. 선천의 식량 사정이 조금 낮고 또한 청천강 이남의 군사 요충지인 안주와 영변과 가깝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는 청천강 이북 해안 지역을 비우자는 일종의 청야 작전이었다. 이에 대해 비변사에서는 조익의 문제의식에 동의하지만, 조선의 문호이자 변강의 최일선인 의주를 포기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대문을 먼저 철수하여 영토를 줄일 수는 없다’는 말이었다.<sup>41)</sup>

당시만 해도 조선은 요민의 등주 송환을 최우선 방침으로 견지했던 만큼, 청북포기론은 더이상 거론되지 않았다. 그러나 모문룡의 처형 이후 가도의 혼란 및 요민의 작폐가 가중되고 후금의 재침이 우려되던 1630년(인조 8) 무렵 조정에서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다. 평안감사에 임명된 민성징이 청천강 이남 안주 중심의 북방 방어체제를 비판하며, 선천과 철산에 大鎭을 설치해 백성들을 안집시켜야 한다고 건의한 것이 그 시초였다. 그런데 인조와 민성징 모두 평안도 방어의 주된 대상으로 후금이 아닌 요민을 상정하고 그들에 대한 무력 토벌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민성징이 부임 후 의주성을 비롯해 백마·검산·용골·능한 등 청천강 이북의 산성 수축을 주도했던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42)</sup>

40) 『인조실록』 권19, 인조 6년 10월 17일(갑진) “夫虜人既專意西犯，遼陽亦棄之，必無越遼斥地之意，則義州雖不守，必不至失地。如使虜人果有意南牧，則雖置此數百殘民，其安能守乎？以此觀之，則義州入守，實非有關於利害，而徒使餘民盡被毛兵吞噬，自就殲盡而已，豈不大可憫哉？……臣之愚意竊以爲莫如移義州及龍鐵之民，聚之於宣川，而空其地，如是而後，吾民可以脫於虎口矣。”

41) 『인조실록』 권19, 인조 6년 10월 17일(갑진) “欲以江邊所居民戶，撤入於內地，仍將義州龍川之民，合處於宣川，以爲清野之地，其所設策，誠非偶然，而但義州，實一國之門戶，疆場之所截也，虜耗之傳報，漢兵之出入，都萃於此，決不可先撤大門，以作縮國之舉。”

42) 『인조실록』 권23, 인조 8년 10월 22일(정묘); 권24, 인조 9년 3월 17일(신묘); 권25, 인조 9년 7월 25일(정유). 한편 1630년(인조 8) 10월부터 1633년(인조 11) 8월까지 평안감사로 재직했던 閔聖徵과 閔聖徵는 동일인이다. 병자호란 직전 조선의 평안도 방어체계 정비에 관해서는 노영구, 『17세기 전반기 조선의 대북방 방어전략과 평안도 국방체제』, 『군사연구』 135, 육군군사연구소, 2013 참조.

반면, 청천강을 경계로 삼아 안주와 평양 중심의 방어체제를 고수하자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는데, 그 논의의 중심에 정충신이 있었다. 유흥치의 반란 당시 토벌군을 지휘했던 정충신은 1631년 6월 유흥치 피살 직후 후금군이 가도를 공격하자 다시 군사를 이끌고 안주성에 들어가 명과 후금의 전세를 관망했다. 이에 인조는 성에서 나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명했지만, 정충신은 안주 방어를 고집하며 오히려 영원·운산·구성·태천 등 청천강 이북의 청년들을 안주로 철수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후금군이 자신의 동료들을 살해한 평안도 가산 백성들에 대하여 보복을 요구하자, 휘하의 도망병을 대신 죽여 넘겨준 일로 인해 민성징과 갈등을 빚었다. 이는 영토를 침범한 적군을 죽였다는 이유로 자국민을 처벌해 보상한 사례로, 청북에 대한 주권을 방기한 일이자 백성들의 항진 의지를 저해하는 조치였다.<sup>43)</sup>

정충신의 안주방어론에 맞서 영유현령 정기수는 ‘청북은 祖宗의 강토이며, 전하가 포기할 수 있는 땅이 아니다’라고 상소하며 반발했다. 그러나 비변사에서 안주방어론이 청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청야 작전에 불과하다고 두둔했다. 뒤이어 정충신은 수성의 어려움을 들어 의주성의 수축 중단을 건의했고, 도체찰사 김류 역시 정충신의 의견에 동조했다. 그들은 청북을 ‘포기’한다는 세간의 주장이 뜬소문에 불과하다고 강변했지만 평안도 민심의 이반은 심상치 않았고, 결국 상당한 규모의 평안도 백성들이 후금으로 귀순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sup>44)</sup> 결국 정충신이 책임지고 물러나면서 청북 포기론을 둘러싼 이때의 논란은 일단락 되었다.<sup>45)</sup>

한편, 1633년(인조 11) 8월에는 모문룡의 부하였던 孔有德·耿仲明이 수

43) 『만운집』 부록 권2, 『年譜』 “至是, 奴胡憤興治被殺, 領二萬騎, 渡江入清北諸郡, 聲言借船攻椴島, 公以元帥往備禦. …… 公又曰, 臣雖出戰, 手下元無所帶軍兵, 賊若深入, 則西門可守之地, 只有安州一城, 兵使雖領本道兵入守, 其勢亦甚孤危, 臣亦當入守安州, 以決一戰矣. 上曰, 卿是大將, 豈有入守一城之理? 勿爲入城, 在外應援可也. 公對曰, 上教則然矣. 只以數哨砲手邊遼西下, 而本道之兵盡入安州, 海西之兵, 繼守黃州, 則遠道之兵倉卒間未及來到, 而安州萬一事有不虞, 誠不可說, 今計莫若臣入守安州, 號令兵使, 期以死守. 上曰, 事體不當如是, 豈有大將而入守乎?”; 『인조실록』 권24, 인조 9년 6월 9일(신해), 6월 14일(병진), 6월 25일(정묘), 6월 28일(경오).

44) 우경섭, 『조선중화주의의 성립과 동아시아』, 유니스토리, 2013, 216~223쪽.

45) 『인조실록』 권25, 인조 9년 7월 9일(신사), 9월 3일(갑술), 9월 5일(병자), 10월 4일(갑진); 권26, 인조 10년 1월 18일(병진), 1월 19일(정사).

군을 이끌고 후금에 귀부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들은 가도가 혼란에 빠진 1631년 산둥으로 피신했다가 반란을 일으켜 登州와 萊州까지 점령했지만, 이때 명군의 반격을 받아 후금으로 도망한 것이었다. 이후 후금이 본격적인 해상 작전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투항은 병자호란과 명청교체의 결정적 계기 중 하나로 간주되었다.<sup>46)</sup> 이 무렵 수군을 동원해 여순을 공략하고 요동반도 일대 동강진 소속의 섬들을 잠식해 가던 홍타이지는 조선에 다음과 같은 국서를 보내왔는데, 이를 통해 당시 가도의 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

내가 가도의 상황을 보건대, 간악한 유흥치가 난을 일으켰을 때 이미 한 차례 도륙당했고, 그 뒤 원수 공유덕과 총병 경중명이 뛰어난 자들을 선발해 등주와 내주로 데려갔으며, 지난번 공유덕·경중명이 등주를 떠나 북쪽으로 올 때 많은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총병 황룡이 가도 일대 정예병을 뽑아 여순에 주둔시켰고, 근래에 다시 우리 군사들에게 여러 섬들이 도륙당했습니다. 또 들건대 명나라 배가 와서 요민들을 실어 갔기에, 지금 섬에 남아있는 자들은 버림받은 노약자에 불과합니다. …… 각 섬에 더러 남겨진 사람들이 있지만 귀국에서는 행여 구제하지 말 것이며, 우리나라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귀국은 또한 막지 마십시오. 왕이 예전에 양식을 주어 구원하지 않고 해안에 상륙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기로 약속했으니, 왕은 시종일관 그것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섬사람들 때문에 사달이 날까 걱정스러우니, 유념하기 바랍니다.<sup>47)</sup>

모문룡의 처형, 유흥치의 반란, 공유덕·경중명의 후금 투항을 거치며 요민에 대한 동강진은 통제력은 거의 상실되었다. 그리고 가도의 요민 중 상당

46) 공유덕·경중명의 후금 귀순과 그 여파에 관해서는 한명기, 『정묘·병자호란과 동아시아』, 푸른역사, 2009, 131~135 및 472~481쪽 참조.

47) 『인조실록』 권28, 인조 11년 8월 16일(을해) “我相島, 奸人劉興治作亂時, 已經屠殺一番, 後孔元帥耿摠兵挑擇優者, 又携赴登萊, 昨孔耿離登北來, 又收有許多, 黃摠兵又選沿島精強, 駐馬旅順, 近又被我兵盡屠諸島. 又聞, 漢船載去, 見今島中有者, 不過老羸去棄之人. …… 各島中間有子遺, 貴國幸勿濟給之也, 若有願入敵邦者, 貴國亦勿止也. 王曾許不濟糧食, 不容上岸, 王宜終始踐之可也. 予惟恐爲此諸島無用之人, 致啓事端, 幸王留意焉.”

수는 유흥치와 공유덕의 이탈 당시 요동과 산동으로 옮겨가거나 조선 및 후금의 가도 토벌 과정에 희생되면서, 주로 노약자들만 남게 되었다. 아울러 산동과 가도를 잇는 명의 해상 지원로가 단절되면서 요민들은 더욱 심각한 기아에 시달리게 되었고, 백마산성에 비축된 군량미 2천 석을 탈취하는 등 그들의 작폐 또한 계속되었다.<sup>48)</sup>

명 조정 역시 동강진의 전략적 가치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1634년 말까지도 감군 黃孫茂 등이 거느린 군사 3만과 배 45척이 새로 가도에 진주하는 등,<sup>49)</sup> 군사 기지로서 가도의 중요성은 줄지 않았다. 1636년(인조 14) 9월 조선의 협조를 요구하는 칙서를 가지고 다시 온 황순무는 청의 부족들을 이간하고 간첩을 활용하며 貢馬를 보내라는 등 구체적 방안들을 제시했다. 그중에는 후금에 속한 한인 및 만주인의 이탈을 부추겨 받아들이라는 요구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의주성을 수축해 동강진과 더불어 기각지세를 이룬다면, 조선은 나라를 보전할 수 있으리라는 말을 덧붙였다.<sup>50)</sup>

요민 때문에 청천강 이북의 통치력을 상실하고 전쟁에 내몰린 상황에서 요민을 더 받아들이라는 명의 압력이 이어지자, 조선은 그저 모문룡의 개진 이래 기울인 노력을 언급하며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청천강 이북 지역에도 산성을 수축하는 등 나름대로 대비책을 마련했지만, 청에 대한 방어체제를 완비하지 못한 채 병자호란을 맞게 되었다. 전쟁 직전 최명길은 청북을 포기하면 안주 역시 온전할 수 없으므로, 의주를 고수하여 압록강에서 결전할 것을 인조에게 건의했다.<sup>51)</sup> 그러나 최명길의 우려와 같이, 조선은 청천강 북쪽에서 청군을 막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이는 전술상의 실패라기보다 동강진과 요민으로 인해 청북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었던 상황의 소산이었다.

48) 『인조실록』 권28, 11년 1월 1일(계사), 7월 25일(을묘), 9월 25일(갑인), 10월 29일(무자), 11월 6일(갑오).

49) 『인조실록』 권30, 인조 12년 9월 6일(기미), 10월 15일(무술), 10월 17일(경자).

50) 『인조실록』 권33, 인조 14년 9월 1일(임인), 9월 3일(갑진) “一曰, 招降之典, 宜擴也. 奴賊之兵, 其能勝衣甲者, 曾不滿萬, 大都皆金白魚皮等部折入之夷人, 暨遼廣等處欲歸不得之亂衆. 今宜大開湯網, 凡陷身奴賊者, 不論夷漢, 悉許投誠.”

51) 『인조실록』 권33, 인조 14년 9월 5일(병오).

1636년 12월 병자호란이 시작되자, 흥타이지는 조선에 ‘詔諭’하며 요민 문제가 조선 침공의 핵심 원인 중 하나임을 재삼 천명했다.

짐은 그동안 너의 나라와 털끝만한 원한도 맺은 적이 없었다. 너의 나라가 기미년(1619) 명나라와 협력해 군사를 일으켜 우리를 해칠 때에도, 짐은 이웃 나라와 지내는 도리를 지키려 가벼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 요동을 얻은 이후, 너의 나라가 또 명나라를 도와 우리의 반역자와 도망자들을 받아들여 명에 바치는가 하면 너의 영토에 수용하여 곡식을 주고 우리를 해치려 함께 모의하였다. 그러므로 짐이 이러한 노여움을 크게 일으켰으니, 정묘년의 의로운 군사는 오직 이 때문이었다. …… 그런데 그 뒤 10년 동안 너의 나라 군신은 우리의 배반자와 도망자를 받아들여 명나라에 바치고, 명나라 장수가 투항해 오면 군사를 일으켜 길을 막고 끊었으며, 우리의 구원병이 저들에게 갈 때에도 너의 나라 군사가 대적하였으니, 이는 군사를 일으킨 단서가 다시 너의 나라에서 일어난 것이다.<sup>52)</sup>

1637년 1월 남한산성에서 조선의 항복을 받아낸 청군이 철군 길에 곧바로 가도 공격에 착수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이른바 丁丑和約의 조문 중 청의 명나라 침공에 조선군 역시 동참하기로 약조했기에,<sup>53)</sup> 조선은 평안병사 유림과 의주부윤 임경업이 이끄는 수군과 전선 50척을 보내 가도 공격에 일조했다. 그리고 1637년 4월 가도가 함락되어 도독 심세괴 이하 1만여 명 중 대다수가 조·청연합군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살아남은 3~4천 명의 요민들은 포로가 되어 심양으로 끌려갔다.<sup>54)</sup> 이때 조선군이 청군보다 더 심한 살상을 저지르자 한인들이 “명나라가 조선에 무슨 원수진 일이 있느냐?”고 책망을

52) 『인조실록』 권34, 인조 15년 1월 2일(임인) “朕與爾國，從來毫無仇隙，爾國於己未年，協相明朝，起兵害我，朕尚欲全隣國之道，不肯輕動干戈。及得遼東之後，爾國復助明朝，招納我叛亡而獻之，復容彼人於爾地，給以糧餉，協謀圖我。朕赫斯怒，丁卯義師之舉，職此故也。……邇來十年之間，爾國君臣，納我叛亡，獻之明朝，明將來投，興兵堵截，及我援兵至彼，爾兵對敵，是弄兵之端，又起於爾國。”

53) 『인조실록』 권34, 인조 15년 1월 28일(무진) “朕若征明朝，降詔遣使，調爾步騎舟師，或數萬，或刻期會處，不得有悞。朕今回兵，攻取椴島，爾可發船五十隻，水兵槍砲弓箭，俱宜自備。”

54) 청측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가도에는 1만 7천여 명의 명군이 있었다고 한다. 『청태종실록』 권34, 승덕 2년 4월 17일(병술).

했다는 소문과 더불어, 평안도 조선인들은 “한인들이 모두 제거되어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sup>55)</sup>

이후 조선의 관심사 중 하나는 조선군이 가도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가 하는 것이었다. 처음 최명길은 조선군이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아 다행이라 보고했지만, 문안사 남두첨은 청군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탈과 살육에 동참했음을 인정했다. 그리고 사은사 이성구는 청에서 가도 공격 당시 조선인 포수들의 활약을 높이 평가한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흥타이지 역시 조선군의 공로에 흡족해하며, 임경업에게 후한 상을 내리고 인조를 치하했다.<sup>56)</sup>

전쟁이 끝난 뒤 조선이 직면한 현안 중 하나는 요민을 비롯해 조선에 들어와 있던 한인들을 청으로 쇠환하는 일이었다. 가도를 탈출한 일부 요민들은 조선에 남기를 원했지만, 조선 조정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평안도와 황해도는 물론 경기 및 강원 등 4도의 감사들은 한인들을 수색하여 옥에 가두고 심양으로 보낼 준비를 해야만 했다. 이제 조선이 보살펴야 할 명나라 백성으로서 요민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았고, 체포하여 복송해야 할 청의 백성만이 남았을 뿐이었다.<sup>57)</sup>

55) 『燃藜室記述』 권26, 『仁祖朝故事本末-清人徵兵』;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4월 24일(계사). 조·청 연합군의 가도 정벌의 실상과 그 기억에 관해서는 류승주, 『朝·清聯合軍의 椴島 明軍討伐考』, 『사총』 61, 고려대 역사연구소, 2005; 서동윤, 『1637년 椴島 전투를 둘러싼 기억의 전승에 관한 연구』, 『진단학보』 123, 진단학회, 2015; 우경섭, 『인조대 ‘親淸派’의 존재에 대한 재검토』, 『조선시대사학보』 81, 조선시대사학회, 2017 참조.

56) 『인조실록』 권34, 인조 15년 4월 18일(정해); 권35, 인조 15년 7월 4일(경오);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4월 24일(계사); 『청태종실록』 권35, 승덕 2년 5월 20일(정해) “賞朝鮮國總兵林慶業綵緞貂裘鞍馬銀兩, 以其從征皮島有功也. …… 勅曰, 寬溫仁聖皇帝敕諭朝鮮國王李倭, 近者島孽蕩平, 朕絕門庭之寇, 海氛掃淨, 爾無心腹之憂, 雖藉諸臣之宣力, 實賴藩服之摠誠, 助朕兵船, 用張撻伐, 動勞聿著, 忠順可嘉.”

57) 『인조실록』 권35, 인조 15년 8월 30일(을축), 11월 22일(병술);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4월 24일(계사).

#### 4. 맺음말

1627년(인조 5) 정묘호란의 강화 결과, 조선은 모문룡을 비롯한 요민을 가도에 가두고 내륙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단속한다는 약조를 후금과 맺었다. 그러나 조선의 통제 밖에 있던 모문룡의 군사 활동은 갈수록 활발해졌고, 청천강 이북에서 벌어진 요민의 작폐는 호란 이전보다 한층 조직적으로 전개되었다. 모문룡은 가도 인근 해안을 넘어 내륙까지 진출하여 군사를 주둔시키기 시작했고, 요민들은 피난한 조선인들의 땅을 차지하고 눌러앉으려 하였다. 더 나아가 그들은 일반 백성에 대한 침학을 넘어, 조선의 관리와 군인들을 공격하고 사신 일행까지 습격하는 등 조선의 공권력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더구나 모문룡은 조선인들까지 동강진에 편입함으로써, 청천강 이북 일대를 자신의 통치 아래 두고자 하였다.

1629년 모문룡의 처형 뒤, 명 조정은 가도의 일부 병력 및 요민을 철수시켰다. 그러나 동강진의 내분이 지속되면서 그동안 제한적이거나 요민들에게 의식을 공급하고 작폐를 단속하던 최소한의 기능조차 마비되자, 절박한 처지에 내몰린 요민들은 동강진의 통제에서 벗어나 내륙을 횡행하며 각자도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요민의 등주 송환을 기본 방침으로 고수하던 조선 조정에서는 두 가지 새로운 방책이 검토되기 시작했다. 동강진과 요민을 무력으로 제어하려는 토벌론과 청천강 이북의 통치를 잠시 유보하자는 청북포기론이었다. 특히 1630년 유흥치의 반란 이후 요민을 대하는 조선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다. 조선 조정은 요민들이 명을 배신하고 후금과 내통할 가능성을 명분으로 삼아, 식량 지원을 중단하고 군사를 보내 가도를 공격했다.

그러나 명 조정은 여전히 동강진의 전략적 가치를 중시했고, 요민의 작폐는 계속되었다. 또한 후금은 동강진의 내분을 틈타 가도를 공격하며 재침을 위협했다. 이러한 상황 아래 조선은 청북 지역의 방어체제를 완비하지 못한 채 병자호란을 맞게 되었다. 그리고 1637년 청에 항복한 뒤 맺은 이른바 정축화약에 따라, 수군을 파견해 가도 공격에 동참하여 요민을 토벌하고 내지

로 숨어든 요민을 수색해 청으로 송환했다. 이제 명나라 백성으로 조선이 보살펴야 할 요민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았고, 체포하여 복송해야 할 청의 백성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이후 요민들의 행방은 어찌되었을까? 아마 대부분은 청의 쇄환 요구에 따라 복송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일부는 신분을 숨기고 조선에 남거나, 아니면 청을 탈출해 다시 조선으로 건너온 사례가 발견되기도 한다.

그런데 조선에 남겨진 요민들은 좀처럼 자신들의 행적을 드러낸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1644년 명이 멸망한 뒤 조선이 중화문명의 적통을 계승했다는 조선중화주의가 출현하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숙종~정조 연간 명 유민에 대한 우대 정책이 시행되었다. 그리고 17세기 전반 조선으로 건너온 한인들은 皇朝遺民이라는 새로운 칭호를 얻게 되었다.<sup>58)</sup> 그러나 당시 가도에 있었던 康世爵·田好謙·王以文 등은 요민으로서 정체성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다. 대신 조선에 再造之恩을 베풀어 준 東征將士의 후예, 혹은 효종을 따라 反淸復明의 대업을 이루고자 했던 隨龍八姓의 일원으로 편입되기를 원했던 듯하다.

명청교체의 과정에서 동강진을 중심으로 후금에 항전한 성과와 의미가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요민으로서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과시하지 못한 데에는 아마 청이 중원을 차지했다는 현실적 이유와 더불어 스스로의 기억을 삭제할 필요도 있었던 듯하다. 1620년부터 1637년까지 평안도에 머물며 조선인들과 심각한 갈등을 벌이는 가운데 송환 혹은 토벌의 대상이었던, 자신들의 환영받지 못했던 과거를 지우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58) 조선후기 皇朝遺民의 출현 및 그들의 정체성에 관해서는 우경섭, 앞의 책, 103~131쪽 참조.

## ■ 참고문헌

### 1. 사료

『仁祖實錄』, 『明熹宗實錄』, 『崇禎長編』, 『清太祖實錄』, 『清太宗實錄』  
『谿谷集』(張維), 『浦渚集』(趙翼), 『晚悟集』(申達道), 『晚雲集』(鄭忠信), 『清陰集』(金尙憲)

### 2. 저서

田川孝三, 『毛文龍と朝鮮との關係について』, 彙文堂書店, 1932.  
권내현, 『조선후기 평안도 재정 연구』, 지식산업사, 2004.  
김중원, 『근세 동아시아관계사 연구』, 해안, 1999.  
우경섭, 『조선중화주의의 성립과 동아시아』, 유니스토리, 2013.  
정병철, 『“天崩地裂”의 시대, 明末清初의 華北社會』,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8.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1999,  
\_\_\_\_\_, 『정묘·병자호란과 동아시아』, 푸른역사, 2009,  
\_\_\_\_\_, 『역사평설 병자호란』 1, 푸른역사, 2013.  
허태구, 『병자호란과 예, 그리고 중화』, 소명출판, 2019.

### 3. 논문

노영구, 『17세기 전반기 조선의 대북방 방어전략과 평안도 국방체제』, 『군사연구』 135, 육군군사연구소, 2013.  
류승주, 『朝·清聯合軍의 椴島 明軍討伐考』, 『사총』 61, 고려대 역사연구소, 2005.  
박현규, 『명 監軍 梁之垣 朝鮮出使 시기 해상활동에 관한 분석』, 『한중인문학연구』 39, 한중인문학회, 2013.  
劉春蘭, 『明·清交替期 漢族의 朝鮮移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1997.  
서동윤, 『1637년 椴島 전투를 둘러싼 기억의 전승에 관한 연구』, 『진단학보』 123, 진단학회, 2015.  
서원익, 『明清交替期 東江鎮의 위상과 경제적 기반』, 『명청사연구』 53, 명청사학회, 2020.  
스즈키 카이, 『劉興治와 朝鮮과의 관계에 대하여』, 『만주연구』 19, 만주학회, 2015.  
우경섭, 『인조대 ‘親淸派’의 존재에 대한 재검토』, 『조선시대사학보』 81, 조선시대사학회, 2017.  
\_\_\_\_\_, 『1620~1627년 조선의 遼民 인식과 송환론』, 『동국사학』 74,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22.  
정병철, 『明末 遼東 沿海 일대의 ‘海上勢力’』, 『명청사연구』 23, 명청사학회, 2005.  
조일수, 『인조대 대중국 외교에 대한 비판적 고찰』, 『역사비평』 121, 역사비평사, 2017.  
허태구, 『張曉의 대외정세 인식과 대중국 외교현안 대응』, 『대구사학』 146, 대구사학회, 2022.

## 1627~1637年期间朝鲜的辽民对策和讨伐论

禹景燮\*

1627年丁卯胡乱以后, 在清川江以北发生的东江镇和辽民的扰民事件比起胡乱之前更具组织性。毛文龙超出皮岛临近海岸地区的范围进发到内陆, 并驻军, 辽民有意在朝鲜避难民的家园里安家。再加上, 他们还攻击朝鲜的官吏和军人, 袭击朝鲜使团, 公然向朝鲜政府的权威挑战。毛文龙更是把朝鲜人也编入到东江镇, 企图把清川江以北地区置于自己的统治之下。

1629年毛文龙被辽东经略袁崇焕处死, 明朝撤走了皮岛的部分兵力以及辽民。可是毛文龙的后继者之间的内部纷争不断, 东江镇再也起不了曾向辽民提供衣食和防止其作乱的起码的作用, 陷入困境的辽民脱离东江镇的控制, 为了自谋生路横行于内陆。

朝鲜朝廷原来的基本方针是把辽民送还到明朝的邓州。在此情况之下, 朝鲜朝廷开始考虑两种对策, 即主张以武力制服东江镇以及辽民的讨伐论和主张暂停对清川江以北地区管理的清北放弃论。尤其是1630年刘兴治的叛乱之后, 朝鲜王朝对待东江镇和辽民的态度有了明显的变化。朝鲜朝廷以辽民有可能背判明朝而内通后金为名分, 中断了对皮岛的粮食支援, 还派军攻打皮岛。

然而, 明朝依然重视东江镇的战略价值, 辽民的扰民事件依旧。而且后金趁东江镇内讧之机攻打皮岛, 发出再次入侵朝鲜的威胁。在此情况之下, 朝鲜政府事实上放置不管清川江以北的状态之下遭到丙子胡乱。1637年向清朝投降之后, 朝鲜派出水军与后金一同攻打皮岛, 讨伐了辽民。还根据丁丑和约搜捕辽民向清朝送还。辽民不再是做为明朝的子民朝鲜应该照顾的对象, 而是应该搜捕并向清朝送还的清朝的子民而已。

**关键词:** 遼民, 毛文龍, 東江鎮, 劉興治, 討伐論, 清北拋棄論

논문투고일: 2022년 7월 22일 || 심사완료일: 2022년 8월 14일 || 게재확정일: 2022년 8월 14일

\*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Inha University